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발표
간담회

2018.3.15.(목) 08:00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2017. 3. 12.

금 융 위 원 장
최 종 구

보도를 위한 참고용으로 실제 발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인사 말씀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을 내어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간담회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업계와 **여러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방안은,
그간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등 사회 각계에서 제기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및
금융감독원 지배구조 실태점검 결과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과,
'16년 제정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시행하면서 나타났던**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평소 가지고 계시던 금융회사 지배구조 발전 방향에 대한
고견들을 아낌없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좋은 지배구조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는 데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추진 배경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리의 중요성과 그간의 성과]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는
금융회사 경영진과 주주간의 본인-대리인 문제를
최소화함으로써 **건전성과 수익성**을 확보하게 하고,
금융회사가 **고객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부실경영이나 불건전 영업의 파급효과가
경제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일반기업에 비해**
훨씬 엄격한 요건과 공적통제가 적용되는 것이 **국제적인 규범**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나 FSB, G-20** 등을 중심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의제들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그동안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영진에 대한 견제장치로
사외이사 제도와 감사위원회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사외이사제도 모범규준 및**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 마련 등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16년에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제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실태 및 당국의 역할]

그러나, 우리 **금융회사들의 지배구조 실태를 보면,**
여전히 **주주와 금융소비자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최근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지적**했듯이,
대주주나 경영진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고
사외이사나 감사 등 견제기능은 활발하지 못하다보니
일반주주나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큰 실정입니다.

오늘 발표할 **금융감독원의 지배구조 실태점검 결과**에서도,
이런 지적들은 상당부분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금융회사 **CEO 및 사외이사 선출과정**에
경영진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개입되어 **독립성과 공정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외이사의 **선출 과정이 독립적이지 못하다 보니,**
사외이사가 **경영진의 활동을 적절히 견제하지 못하고**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종속될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금융회사 대주주의 자질에 대한 공적 통제장치도
아직은 불완전한 상황입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으로 **2금융권 최대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 심사제도가 최초로 도입되었으나,
심사대상이 최다출자자 1인으로 제한되어
금융회사 경영에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들을
모두 심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 및**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관리자로서,

금융회사의 경영이 **경영진의 내부이해관계가 아니라**
주주와 금융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실질적인 관행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 금융회사에 대한 당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생길 때 **시장과 회사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주요 추진방향

정부는 **네 가지 측면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강화를 통해
금융회사를 실제로 지배하는 지배주주들이
금융회사 소유에 적합한 자질을 갖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기존의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와 그 밖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대주주까지 확대하고,
대주주 부적격 요건으로 주요 경제범죄 중 하나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을 추가하겠습니다.

둘째, **금융권의 CEO 선출절차를 투명화**하고,
이사회 내에서 사외이사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금융전문성 등 **사전에 마련한 엄격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만 CEO 후보자군에 들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가 **CEO 후보자군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주주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CEO 및 이사 선출과정에서 소수주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형 상장금융회사에 대한**
주주제안권 행사요건을 더욱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본금 1천억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현행 "의결권 0.1% 이상"에서 "**의결권 0.1% 이상 또는 주식액면가 1억원 이상**"으로 완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에
CEO의 참여를 금지하고,
사외이사의 연임시 외부평가를 의무화하여
사외이사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 후보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외부전문가가**
추천한 인재를 포함하도록 **내부규범에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경영활동의 건전성을 감시하는
감사와 내부통제 기능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겠습니다.

상근감사나 상임감사위원의 경우에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과 마찬가지로
동일회사에서 장기간 재임*할 수 없도록 하고,
필요한 직무 전문성 요건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 최대재임기간을 동일회사에서 6년, 계열회사 포함 9년으로 제한

감사위원의 직무전념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이 **이사회내에서 경영활동과 관련된**
다른 소위원회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겠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실태가**
미흡한 경우 CEO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직원의 위규행위를 책임지고 막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고액연봉자에 대한 보수공시와 보수통제를 강화하여
금융권이 **높은 연봉에 걸맞는 성과와 가치를**
주주와 금융소비자에게 창출하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보수 또는 성과보수가 일정액* 이상인
임원과 특정 직원의 개별보수를 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고,

* ① **보수총액 5억원 이상 임원** 및 **보수총액 상위 5인(5억원 이상)인 임직원**
② **당해연도 성과보수 총액 2억원 이상**인 임원・특정직원(금투업무담당자 등)

미국과 영국의 Say-on-Pay 제도를 준용하여
등기임원에 대한 보상계획을 임기 중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상정하여 주주의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 맺음말

금융위원회는 우리 **금융산업의 혁신 방향**에 대하여
세 가지 방향성을 두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
그리고 "신뢰받는 금융"이 그것입니다.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은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과 금융의 미래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이지만,
국민의 신뢰 없이는 진정성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지배구조 개선을 지금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젤위원회(BCBS)가 '**은행 지배구조원칙***'에서
"은행 지배구조의 제1원칙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공공의 이익과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일치시키는 것이다**"고 언급한 것처럼,

* 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 for banks, '15.7월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금융권이
공공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경영원칙을 확립한다면,
국민의 오해를 불식하고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금융산업의 새로운 혁신을 위한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많은 전문가 분들의 아이디어와 지혜를 추가하여
더욱 완성된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